

인도 인문 포커스

India
Humanities
FOCUS

Vol.14

인도 종교가 그리는 환멸(幻滅), 각성(覺醒), 염리(厭離)

-samvega와 nirveda의 뜻과 의미의 확장-

방정란

언어에는 그 언어를 쓰는 이들의 문화와 관습, 세계관 등 모든 것이 담긴다. 그러므로 특정 언어로 쓰인 하나의 사상을 다른 문화권의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별하는 일은 매우 고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위대한 4대 역경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꾸마라지바(Kumārajīva 鳩摩羅什, 343-413)는 평생에 걸쳐 인도 불교 문헌을 유려한 한문으로 번역해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번역이란 마치 밥을 씹어 남에게 주는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에게 구역질마저 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꾸라마지바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고뇌는 오늘날 인도 고전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여전한 과제이기도 하다.

중국과 티벳은 내용 전달의 혼선을 피하고 역어를 통해서 원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역경에 필요한 용어를 통일하기도 했었다. 분명 일관된 기준으로 특정 원어에 해당하는 역어를 통일되게 사용하는 것은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동일·유사한 단어일지라도 이를 사용한 저자들의 이해와 문맥에 따라 번역어를 달리해야 할 경우가 생

긴다. 그러므로 역어의 통일도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문헌에 따라 동일한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의 확장은 인도 사상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나의 예로서, ‘세속 세계에 대한 염증과 환멸’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samvega와 nirveda의 용례들에 대해 살펴보자. 이 단어들은 각각 종교적 수행의 길에 접어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심적 동요’와 ‘세상에 대한 염증’을 기본적으로 의미하지만, 한역에서는 거의 동의어처럼 모두 염리심(厭離心)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Samvega의 뜻과 불교의 해석적 확장

리그베다나 초기 브라흐마나 문헌에서 동사어근 √vij는 ‘재빠르게 움직이다, (과도를) 물결치게 하다, 발진하다 혹은 위협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는데, 서구 학자들은 이 어근을 라틴어 vigor(활력, 기세) 등과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했다. 이 어근에 접두사 sam이 추가된 형태에서 파생된 단어가 samvega이다. 초기 이후의 인도 종교 문헌에서도 동사어근 √vij는 자동사로서 ‘발진하다. 재빨리 움직이다. [두려움에] 떨다’ 등을 의미하는데, 접두사 sam은 영어의 ‘with’와 같은 기능을 하거나 동사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samvega는 ‘동요, 두려움, 긴박한 착수’ 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samvega(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형태 동일)는 특히 불교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된다. 범어문학의 대문호(大文豪)인 아슈바고샤(Aśvaghoṣa 馬鳴)는 『붓다짜리따』(Buddhacarita, 佛所行讚)에서 사문유관을 다룬 3장을 samvega-utpatti(마음의 동요가 일어남)이라고 이름 붙였고, 한역은 이를 염환품(厭患品)이라고 번역했다. 팔리(Pāli) 문헌에서도 samvega는 유사한 용례를 보이는데, 이 같이 긴박한 동요가 생기는 근거(samvega-vatthu)를 기본적으로 생, 노, 병, 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한다. (네 가지 혹은 여덟 가지 samvegavatthu에 대해서는 Coomaraswamy 1943:175; A.Bhikkhu 2022:7).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교문헌에서 samvega가 사용되는 관련 용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함의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요’란 충격으로 얼어붙은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함과 절실함에 의해 종교적 전향을 재빠르게 이루어내는 동력으로서의 상태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미몽에서 벗어나 깨어났다’는 의미에서 환멸(幻滅, disillusion, disenchantment)과 각성(覺醒)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나아가 종교적으

로 각성된 상태, 혹은 종교적 열망이 가득 찬 상태라는 좀 더 광범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Coomaraswamy 1943; Arci 2015, 김한상 2016).

요가수트라에 samvega 용례와 주석가들의 해석

그러나 불교 문헌에 나타나는 이러한 samvega의 확장된 용례가 불교 밖에서도 처음부터 널리 통용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로서, 『요가수트라』의 [삼매란] 강력한 강도(samvega)를 지닌 이들에게 가까이 있다(tīvrasamvegānām āsannaḥ 1.21)’라는 문구에서 samvega의 용례가 나타난다. 그 의미를 『요가註』(Yogabhāṣya)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애(信愛 śraddhā)와 정진(精進 vīrya), 기억(smṛt), 그리고 선정(samādhi)와 지혜(prajñā)의 순차적이며 반복적인 수행은 집착을 떠난 이욕(離欲, vairāgya)을 이루도록 하며, 이로써 수행자에게 무상삼매(asamprajñāta-samādhi)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 방편(upāya)의 단계에 따라 수행자(yogin)는 상중하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 단계는 다시 그 강도(samvega)에 따라 상중하로 세분되므로 결론적으로 아홉 종류의 요가수행자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구절에서 samvega는 수행 방편의 강도(intensity)를 나타낸 용어로서 불교처럼 긍정적 함의를 지시하기보다는 보다 중립적으로 사용된다(Brekke 2002; Arci 2015). 이에 관해 후대 주석가들은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그 중 바짜스빠띠미슈라(Vācaspatimiśra, 9~10세기)는 samvega를 이욕(vairāgya)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비가나빅슈(Vijñānabhikṣu, 16세기)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여, 이욕이란 방편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samvega를 이욕 자체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한 수단을 실천할 때의 신속성, 즉 추진력의 강도로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samvega를 이욕(vairāgya)으로 풀이하는 바짜스빠띠미슈라의 해석 맥락은 종교적 열망을 일으키는 상태인 samvega를 ‘세속에 대한 염증, 혹은 무관심(=이욕)’을 뜻하는 nirveda와 연결시켜 언급하는 불교와 자이나 문헌과 분명 유사한 맥락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함께 언급되는 samvega와 nirveda

nirveda는 영어의 without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접두어 niṣ에 ‘없다, 찾다, 느끼다’는 의미의 동사어근

avid가 결합하여 파생된 명사이다. 이는 특히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증, 진저리, 무관심’ 등을 뜻한다. 다시 말해, saṃvega와 nirveda는 흔히 ‘염리’에 해당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어근의 의미에 따라 이해하자면, saṃvega 단어 자체에는 ‘놀라움과 공포, 그러므로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이라는 심리상태를 지시하는 데 비해, nirveda는 ‘반감, 염증, 혹은 그로 인해 대상에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는 무관심’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둘은 각각의 정서적 특징으로 인해 수행 행위를 촉발시키는 동기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결국 동일하게 한역되기도 한 것이다.

특히 불교와 자이나 문헌에서는 이 둘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이나의 중요 사상가 중 한 명인 헤마찬드라(Hemacandra, 12세기)는 중기 자이나 경전의 교설에 따라 자신의 저작 『요가샤스트라』(Yogaśāstra 2.15)에서 ‘바른 믿음/견해(samyaktva, samyagdr̥ṣṭi)’의 특징으로, 평정(śama)과 해탈을 향한 열망(saṃvega)과 세상에 대한 염리(nirveda), 그리고 자비(anukampā)와 진리에 대한 믿음(āstikya)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꼽는다. 여기에서는 saṃvega와 nirveda는 미묘한 의미차이를 유지한 채 여전히 구분되고 있다. 이와 대조해서, 대승불교작품 중에서는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산띠데바(Śāntideva, 7-8세기)의 저작으로 알려진 『입보리행론』(Bodhicaryāvatāra)에는 ‘[세간의] 칭찬 등은 종교적 각성(saṃvega)을 헤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는 구절(6.98b)이 있다. 세상에서 소위 미덕이라 불리는 요소들이 실제로 깨달음에는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문헌을 주석한 프라즈냐까라마띠(Prajñākaramati, 10~11세기)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종교적 각성(saṃvega)’이란 ‘윤회의 고통에 대한 강한 혐오(saṃvegaṃ saṃsāraduḥkhanirvedanam)’라고 풀이한다. saṃvega에는 두려움이나 동요와 같은 정서가, nirveda에는 반감과 무관심이라는 각기 다른 정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풀이는 이 둘이 지시하는 심적 상태가 결국 종교적 수행의 강력한 행위 동기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이해한다. 즉 어느 시점부터 미세한 의미 차이보다는 공통된 지향점에 방점이 찍혀 이 두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이다.

아비나바굽따의 미학이론에서 nirveda

기원전으로까지 소급되는 문헌인 『나띠야샤스트라』(Nāṭyaśāstra)는 인도 미학의 고전이다. 이 문헌으로부터 시작된 라사(rasa) 이론은 애정(śṛṅgāra), 해학(hāsyā), 분노(raudra), 비애(kāruṇya), 혐오(bībhatsa), 공포(bhayānaka), 용기(vīra), 경이(adbhuta)라는 여덟 가지 라사로 구성된다. 이후 이 여덟 가지 라사에 평정(śānta)

이라는 라사가 포함되면서, ‘아홉 가지 라사’ 이론이 정립되게 된다. 그러나 평정을 중요 라사의 하나로서 인정하느냐의 문제 혹은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6세기 이후부터 수사학자(ālaṃkārika)들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여덟 가지 라사(정서)들과 비교해서 이 평정이라는 라사는 심미적(aesthetic) 상태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종의 정서 상태라기보다는 해탈과 같이 초월적(transcendent) 상태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인도 미학자이자 사이버 철학의 대사상가인 아비나바굽따(Abhinavagupta)가 있다. 그는 『나피야샤스트라』에 관한 자신의 주석(*Abhinavabhārati*)에서 이 평정(śānta)을 아홉 가지 라사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평정은 nirveda(이욕)로부터 일어나는 점을 해명한다 (Timalsina, 2020). 물론 여기서 nirveda로부터 적정(śānti)이 생겨난다는 견해는 미학 관련 논의 이전에도 이미 『마하바라타』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주장은 nirveda가 기반정서(sthāyi-bhāva)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설하면, 아비나바굽따는 『요가註』(1.16)의 ‘vairāgya(이욕)은 지혜(jñāna)의 정점’이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욕(nirveda)은 진리를 아는 지혜(tattva-jñāna)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nirveda와 vairāgya를 단순히 ‘이욕’이란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에서 나아가 nirveda를 ‘끊임없이 슬픔이 일어나는, 특정한 마음 상태(śokapravāhāprasara-rūpāś cittavṛttiviśeṣaḥ)’로, vairāgya를 ‘모든 집착 등이 소멸된 상태(rāgādīnām pradhvaṃsaḥ)’로 정의함으로써, vairāgya를 nirveda보다 우위의 상태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가학과와 수사학 문헌들에서 samvega 혹은 nirveda를 vairāgya를 통해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 용어는 ‘해탈을 향한 이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관계로서 서로 포섭되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samvega와 nirveda라는 말에 담긴 인도사상의 가치관과 사유방식을 생각해보자. 두 단어 모두 두려움이나 싫증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지시하지만, 인도종교는 이 부정적인 정서가 종교적으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들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삶보다 이를 초월하는 삶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인도인의 태도가 담겨 있다.

특정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문맥을 통해 활용되고 확장된다. 그렇기에 samvega는 ‘긴박한 두려움’에서 ‘종교적 열망’으로, nirveda는 ‘염증’에서 ‘집착을 떠난 무관심, 즉 평정’으로까지 번역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도의 사유는 사물과 현상의 고정적인 측면은 결국 순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어떤 부정적 상태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긍정적 변화의 추진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참고문헌

- Arci, Andrea. "Between Impetus, Fear and Disgust, 'Desire for Emancipation' (Saṃvega) from Early Buddhism to Pātañjala Yoga and Śaiva Siddhānta", *Emotions in Indian Thought-Systems*, Routledge India, 2015, pp.199-227.
- Brekke, T. *Religious Motivation and the Origins of Buddhism: A Social-psychological Exploration of the Origins of a World Relig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2
- Coomaraswamy, Ananda K. "Saṃvega, "Aesthetic Shock"",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7, No.3, Harvard-Yenching Institute, 1943, pp.174-179.
- Devy, G.N. *Indian Literary Criticism: Theory and Interpretation*, Orietn Longman, 2002.
- Nguyen, Dat Trong. *Saṃvega and Upanisās as Resolution of Paṭiccasamuppāda: with Phenomenology as Framework*,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 2019
- Timalsina, Sthaneshwar. "Abhinavagupta on Śānta Rasa, The Logic of Emotional Repose", *Handbook of Logical Thought in India*, 2020.
- 김한상.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 불교미학: 빨리 성전과 그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6호, 2016, pp.17-44.
- 정승석. 『요가수트라 주석』, 씨아이알, 2020

저자 프로필

방정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고전인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교 종합불교연구소 소속강사로 있다. 인도 탄트라 전통의 사상을 샤이바(Saiva)와 바즈라야나(Vajrayāna)의 상호 영향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 비판 교정본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인도 종교 전통의 사상사를 탐구하고 있다.